



특별기획



[2019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장려상(한국보험신문사장상)] “한중일 외에 다른 나라 대학생도 참여했으면”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 작게](#)[+ 크게](#)

‘FELLOWSHIP INSURANCE’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2019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일본 다쿠쇼쿠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TiT팀이 장려상(한국보험신문사장상)을 거머쥐었다.

TiT팀은 개방형 SNS에서 보험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했다. 보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젊은층에게 보험 니즈를 불러일으키고 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SNS 개념을 도입했다. 팀장인 김범수 학생은 "일본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RIS(Risk and Insurance Seminar)를 개최한다. 올해 16개 대학팀이 참여한 이 대회에 참여했고, 이 대회를 참관한 일본보험매일신문으로부터 '2019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를 제의받았다"며 "이에 나카야마 코타, 오노주카 케이타 학생과 함께 지난 6월부터 대회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학생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3일 정도 주제 선정을 위해 매일 만나 고심했다"며 "일본에는 라인, 한국에는 카카오톡, 중국에는 위챗 등 전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SNS를 사용하는데 개방형 SNS 보험 서비스가 없는 것 같아 이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노주카 케이타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 매일 같이 모여 연구를 진행했다.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밤새 발표준비를 했다"며 "이번 대회를 위한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카야마 코타 학생은 '2019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 "보험을 공부하는 한중일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면서 "한국과 중국 대학생 외에 다른 나라 대학생들도 참가해 교류의 폭을 넓히게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저작권자 (c) 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9-10 00:01:33 입력.

최종수정 2019-09-10 10:02:44



목록화면



핫이슈

“실손 손해율 방치하면 30년후엔 보험료 17배로 뛴다”

“개인 의료이용 연계된 보험료 차등제 절실”

속보

NH농협생명, 영농철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 나서

신한생명, 인터넷보험 가입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포토뉴스



정성과 공경의 마음이 듬뿍 담긴 봉사활동



[중국보험보]올 여름 중국 보험업계 봉사활동 키워드는...

로그인

PC버전

PDF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